

◇ 기동 취재 : 관리·청소·일용직들의 임금과 생활

경회가죽 수의 수외계종

에 따른 지가 및 전세값 상승으로 울타리 17미터 비싼 자살을 했으며, 자기집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대다수 노동자들에게 전세 가격의 상승은 힘든 투쟁을 통해 획득한 임금인상의 효과를 반감시키는 주요인이 되었다. 지금 전국에서 파업을 하고 있는 산업 노동자들은 물론 본교 직원들도 전세값, 물가상승으로 생활이 어려워를 겪고 있다. 특히 관리인직, 청소직, 일용직종사자들은 더욱 어려운 형편에 처해있다.

I. 임금수준의 검토

본교에 10년간 몸담아온 한 관리인직종사자는 과다한 지출의 증가로 생활하기가 어렵다며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한다.

전세로 사거나, 일단 방세 나 가조, 자식들이 있으니, 남들 나 시키는 교육 안시킬 수도 없고, 1년 내내 먹고 싶은 것 안 먹고 허리띠 졸라매고 1백만원 모으기가 힘듭니다.

1년에 1호봉씩 올라가는 본교의 호봉체계로 보아 10호봉(본봉, 수당, 상여금 포함. 89년도 연봉 8백15만원30원)을 12로 나눈다면, 한달 수당은 대략 67만원 정도인 임금을 받고 있다. 이는 89년 5월말 발표된 노총이 도시 근로자 최저 생계비 통계자료의 4인가족(관리인직종사자들의 평균 연봉이 40세를 넘어 보통 3~5인의 가족을 부양하고 있음) 최저 생계비 78만8천69원 10원인 이 넘게 차이가 난다. 더구나 총 75명인 관리인직 종사자들의 대다수가 5~7호봉(89년도 연봉, 5호봉:6백87만9천7백80원, 6호봉:7백12만9천7백90원, 7호봉:7백38만2천원)의 임금을 받고 있어서 전체 관리인직 종사자들의 생활이 무척 어려움을 알 수 있다.

여기에 나와서 청소하는 아주

조항이 있어 일용직종사자가 6개월 넘게 근무하면 정식임용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본교에 종사하고 있는 일용직종사자 21명중 6개월 또는 1년이상 근무한 종사자들이 있다.

II. 당면한 주택문제

“방값도 올라가고 단칸방에 4 명이 살려고 하니 좁기도 해서 3 백만원 올려주고 방1칸에 계속 사는 것 보다 차라리 도시외곽의 넓은 집을 얻자고 마음 먹고 이사 했습니다.”

서울시 마포2동에 살다가 미곡시로 이사한 한정소직 종사자가 말하듯이 관리인직, 청소직 종사자들의 주택문제는 심각한 상태이다. 우선, 관리인직 종사자들의 주거현황을 살펴보면, 노조에서 실시한 주거현황 조사에서 조사대상 70명중 단독주택 25명, 연립주택 11명, 전세 27명, 월세

가 주요한 점으로 부각 되고 있다. 임금교섭을 앞두고 각 사업장의 노동조합들은 임금인상 이외에 주택수당인식, 주택자금 융자확대, 주택조합활동지원, 임대주택건설등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각 대학의 비영리 기관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재정이

해 나가야 할 것이다.

III. 임금협상의 현황

노조에서는 이들의임금, 처우 개선등의 사급함을 느끼고, 90년 임금교섭에서 ‘하후상박’의 원칙을 내세우며 임금인상분에서 정책의 비율을 높여 사무, 기술, 기능, 관리인 3관원 인상, 청소직 4관원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학교측에서는 ‘분배의 정의’를 말하며 전직급 2관원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임금인상 분에 있어 정책과 정리의 구성비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정률비가 높을수록 본봉이 높은 직원의 임금이 많이 상승하게 되며, 정액비가 높을수록 본봉이 낮은 직원의 임금이 높게 책정된다) 학교측은 5%구분과 장기근속 수당 신설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이에 노조측에서는 예산이 없다면서 학교당국이 사무직에게만 지급되는 행정수당을 노조가 제안한 수준보다 1만3천원이나 인상하여 책정하겠다는 것은 노조원들의 직능간 분열을 의도한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측에서는 행정의 전문성과 근무의욕증진을 위해 행정수당을 2만8천원으로 인상 책정하였다는 입장을 주장하고 있어 이번 임금교섭은 조석한 해결이 어려운 것으로 추측된다. <조인성 기자>



◇ 5월12일 학교 측과 노조의 90년 임금협상 장면

관리·청소직의 임금수준, 최저 생계비에 크게 미달 주택문제해결위해 주택조합.용자들의 대책 세워야

7명의 본포로 나뉘었다. 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기를 가진 사람이 많다. 그러나, ‘단독주택이나 연립주택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구리시도 서울 외곽 지대로 주거하는 사람이 20여명 정도로 서울내에 사는 사람보다 훨씬 많은 숫자입니다. 그리고 전·월세에 사는 사람들은 방세가 올라서 생활고가 심하다고 있는 형편입니다’라고 노조측은 말한다.

그리고, 청소직종사자들의 주거현황조사 결과 총 23명중 자가 8명, 전세 11명, 월세 4명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에서 자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8명은

백만원의 월세 주어야 할 형편에 처해 있는 등 대부분의 청소직종사자들은 적어도 주인에게 3~4백만원 정도의 월세를 올려 주어야 할 어려움에 처해있다.

올해 들어 전세값은 사상유례없이 폭등하고 있다. 주택은행에서 조사한 2월중 전세가격을 보면 서울시의 경우 89년도에 비해 전세가격이 무려 37.5% 상승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주거비용 폭등은 그간의 높은 임금인상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의 경제적 주거생활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이러한 제반 상황에 의해 최근 들어 노사간의 임금협상이 거의 중단된

3대제 ‘경회’를 고집한 10회 졸업생 홍성모 동문을 만나

“누구든지 모교에 대한 애정은 크다고 생각하지만 저의 경우는 좀 유별나다고 할거요. 저는 제 아들이 담교원 경회대에 입학하는 걸로 생각했고 아들도 그것을 당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자놈들 하나는 꼭 경회대에 보낼 생각입니다”라며 딸을 여는 비봉고등학교 교장전신생원 홍성모씨는 1962년 본교 정경대학 상학과(현정경학과에 해당) 졸업했다.

또한 지난 82년 돌아가신 그의 아버지 홍건표씨도 1960년 본교 체육대학을 졸업했으며, 일본 긴키 대학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아들 홍성보씨도 6년전 본교 정경대학 경영학과를 졸업하여 41년 경회역사 유 일하게 3대가 본교를 졸업하는 기록을 남겼다.

“제가 학교다니던 시절엔 지금같이 풍요롭지 못했어요. 그래서 학교를 휴학했다가 뒤늦게 다니는 사람도 많았고 제 아버지처럼 늦게 학교에 입학하는 사람도 꽤 있었어요”라며 아버지와 같이 재학시절을 보냈으면서도 서로 단과대가 달라 자주 만나지는 못했으나 캠퍼스를 거닐다 아버지를 만나 차를 마시며 추억을 회상하기도 했다.

“제가 학교에 다닐때는 한창 자리를 잡아가는 시절이었는데 졸업후 제대로 학사편입을 해서 선수생활을 했으며 지금은 한국대학유도협회의 부회장직

인터뷰

을 맡아 선수들을 격려하며 특별한 유도를 해 건강하고 싶었다.

“조영식 총장님이 작사한 ‘목련화’를 무척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재직하고 있는 비봉고등학교에선 음악시간에 꼭 ‘목련화’를 가르치도록 하고 있죠. ‘목련화’ 하면 경회가 생각나듯이 이젠 비봉고등학교들에게도 목련화를 떠올리게 하고 싶어요. 비봉고등학교에 가보면 20년전 목련나무가 40 그루 정도 있는데 꽃을 파를 때면 정말 장관입니다. 그럴때면 더욱더 재학시절이 생각나곤 합니다”라며 경회도 학생군에 위치한 비봉고등학교의 풍경을 생생하게 설명했다.

“아버지와 아들과 제가 다녔던 학교라서 아니라고 하면 안되는 사실인데 경회정신을 항상 가슴에 새기며 교육에 임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홍성모씨는 서울에서 비봉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3학년 딸을 비봉고등학교로 전학시켰을 만큼 교육관이 확고했다.

“이젠 경회도 많이 자라 어느정도 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봅니다. 졸업한 동문선배들도 중요하지만 역시 학교의 발전은 재학생의 노력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후배들이 모면하면서 열심히하는 절정 발전하는 경회의 모습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라며 말을 맺었다. <경>



그때는 자리를 잡아 가던 터라 세활활동이 저조 했고, 학교앞 대학촌도 초라 했습니다.

특집 ... 대학신문자주화 선포의 의의

언론은 자주성을 그 생명으로 한다.

자주성이란 자연의 구속을 극복하고 사회의 온갖 억압을 받으며, 세계와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사람이 그의 고유한 본질적 속성이다.

바로 이와 같은 사회존재인 사람의 그의 본질적 속성인 자주성을 인체매체와 전파매체를 통해 사설로 표현해내고, 또한 이를 견결히 옹호 발전시켜나가는 것이 언론인 것이다.

대학신문은 자기역할을 다하는 데 있어 직면하게 되는 온갖 억압과 억압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며, 대학신문의 제작주체들이 대학신문의 지위와 역할을 온전히 이해해야 하는 동시에 대학신문 제작과정의 자주성을 옹호, 발전 시킬뿐만 아니라 제작주체인 기자들의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활동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학신문의 자주성이란 대학신문이 자기역할을 수행하는데 있어 자해요소로 작용하는 모든 억압과 억압을 타파하고, 대중의 자주성을 옹호, 발전시켜나가는

다는 대명제이며, 이는 실현을 요구한다.

작년 5월6일 문교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발표된 대학신문 이원화조치에 이어 지난 4월 27-28일 유성온전에서 있는 주간교수협의 회에서는 문교부가 또다시 대학신문에 대한 탄압과 감시를 자행 하겠다'는 것이 공공연히 알려지고 있다.

대학신문의 학교신문, 학생신문

20일 까지 각 대학에서 시행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고 한다.

작년 문교부 5.6조치이후 전국 10개 대학 20여개 가까운 기자와 필자가 국가보안법의 죄책을 차고 차가운 감방으로 활동의 장을 옮겨야 하는 아픔을 우리는 해보았다. 수원대, 아곡대 등에서는 현 단계와 학교당국에 의해 계속된 탄압이 자행되고 있으며, 여타 10개에 가까운 대학에서도

신문의 주인은 독자대중

자주성 확보로 민족자주언론 창출해야

문의 본리를 골자로 하는 지난 문교부의 이원화조치는 1)대학신문의 발행인을 총장에서 학생회장으로 하고 2)대학신문 발행에 따르는 재정적 책임 역시 학생회장이 되며 3)신문발행에 드는 경비 또한 자체적으로 조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5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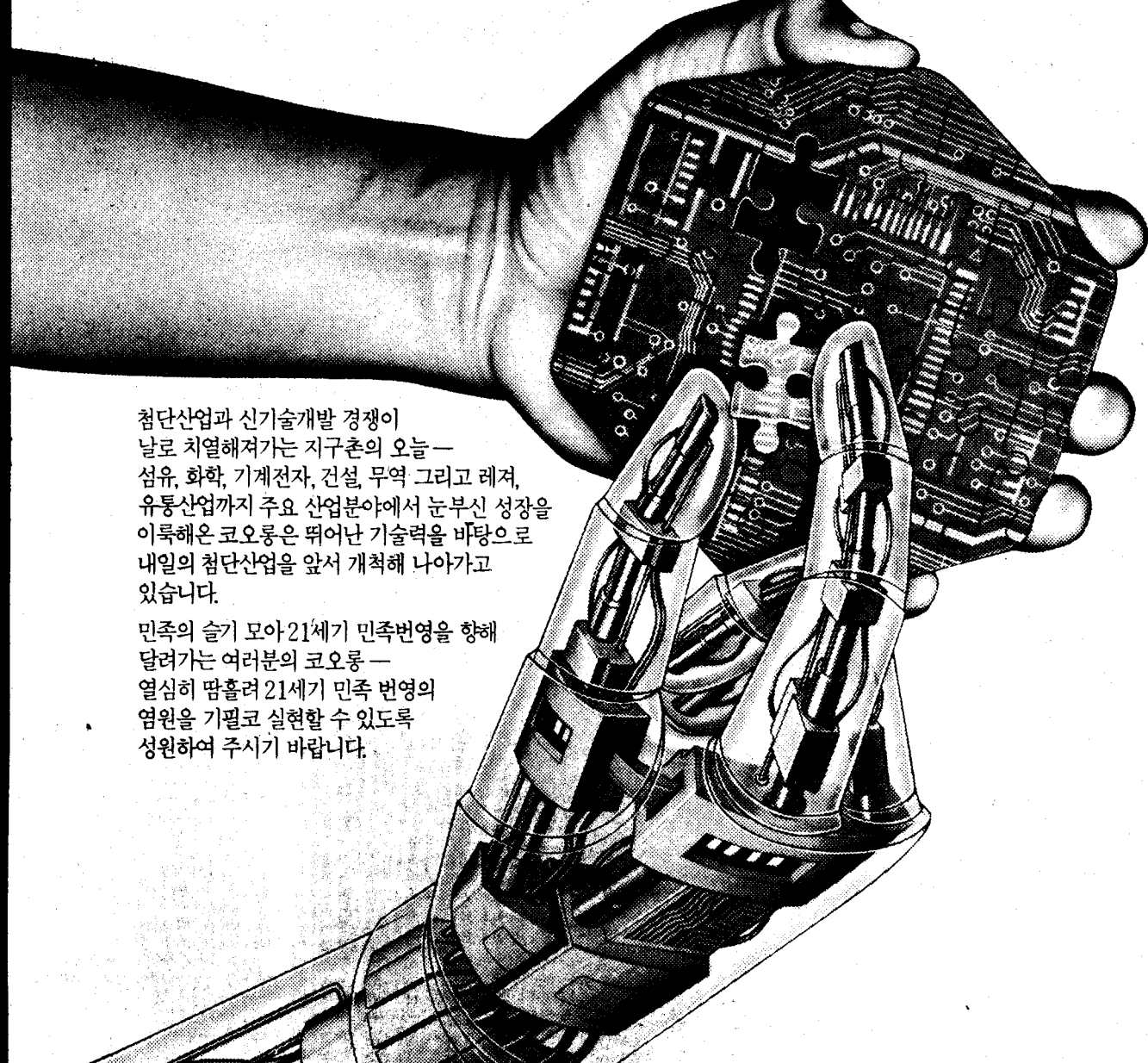
편집자들과 운영권을 돌려주고 신문 제작주체 사재를 갖고 있다는 현실이 바로 그것이며, 지난 주간교수협의회에 전달된 문교부의 대학신문 감시위원의 구성이 바로 그것이다.

대학신문 선포의 위는 문교부 장관 10인(신방과 교수중심)으로

대학신문의 역할과 사명 에 대한 기자주체의 바른 인식, 실무역량의 철저한 단련, 교양학습, 신문사내의 민주적인 사업작품 확립은, 바로 신문작업의 주체인 대학신문기자가 주체적으로 습득하여야 할 크나큰 과제이다.

이제 슬러하는 90년대에는 독자대중을 대학신문의 주인으로 튼튼히 바로 묶어 세우고, 대학신문기자가 역시 자주성을 가져야 함은 우리의 사명이라 할 수 있겠다.

<특집부>



민족의 슬기와 번영의 염원 — 코오롱 21세기

“코오롱의 첨단기술로 펼쳐는 21세기 인류의 비전”

섬유산업 코오롱 섬유기술이 장섬유와 아라미드 섬유를 포함한 새로운 신소재 개발에 우주시대의 첨단 섬유기술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화학산업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등 최첨단 신소재 개발을 통한 첨단화학 및 생명공학 연구에 코오롱이 앞장서 나가고 있습니다.	기계·전자산업 항공전자 신소재로부터 산업용 고기능 코오롱까지, 코오롱이 개척해 나가고 있습니다.	貿易産業 세계를 무대로 엔터프라이즈 미사일까지, 10년 신기술을 기반으로 무역왕국 코오롱이 이룩하는데 코오롱이 앞장서 나가고 있습니다.	建設産業 유리벽 시설과 지하철 건설, 초정밀 해빙공사와 도로, 상판 플랜트는 물론 미래 도시개발에 코오롱의 신기술이 앞서 개척해 나가고 있습니다.	서비스産業 가계문화의 발달로 인한 인간의 생활학적 변화현상을 코오롱의 첨단 스포츠과학 의지가 앞장서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	---	---	---	---	---

코오롱 (주)코오롱·코오롱상(주)·코오롱건설(주)·코오롱화학(주)·코오롱엔지니어링(주)·한국코오롱·한국화(주)·코오롱물류·코오롱메트로·코오롱세이커(주)·고려나일론(주)·삼영인(주)·코오롱-메트생명보험(주)